발행인 박 술 음
주 간 양 수 산
편집장 김 호 석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
외 대 학 보 사
수협번호 131
TEL 69 3751(직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270

외대학보

(1958. 3. 27. 제3종 우편물 인가)
(허가 번호 제다253호)

1972년 5월16일 발행
제 166 호

Sister Paper In Foreign Languages
The Argus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이문쫏점

나날이 성그러운 대폐가는 신록에 젊은 지성 (知性)의 향을 한층 더 향긋의 나래를 펼친다. 이문동산에 찾아든 5월에 흔산즈음은 즐거움을 노끼기에 앞서 어떤 정의감 (正義感)을 제독한다. 울창한 신록에 담긴 희망과 불굴의 의지는 바로 젊은이들의 드높은 포부일 것이다.

건전한 학풍의 조성

사설

지난 8일부터 입주인간 실시되었던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캠퍼스는 그뜬안의 긴장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밝은 표정을 되찾고 신록 (新綠) 을 감상할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시험기간중 분비는 도서관에서 혹은 중심의 조용한 구석구석에서, 대학내의 어느 곳에서나 엿볼수 있었던 면학 (勉學) 의 자세에서 우리는 우선 반가운 느낌을 금치 못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이 후조 (稿鳥) 의 생리 (生理) 처럼 시험때에 국한 (局限) 된듯한 종조에 아쉬운 감을 배제 (排除) 할 수가 없다.

본대학의 시험은 학사일정 (學事日程) 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한 한학년중만 4회, 한학기에 2회를 치르기로 되어있다. 시험제도는 학생자체를 위한 것으로일정기간중만 일을 바 지식에 대한 복습내지는 체계적인 정리작업을 위한 좋은 계기 (契機) 가 되어야 하고 상위를 받은 교수의 입장에선 그간 학생들에게전달한 지식의 정도를 테스트하여 평가할수 있는 자료를 마련, 효과적인 대학교육의 지침 (指針) 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필수 있다는데 시험제도의 유효성이 내포되는 것이다.

시험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정도 수긍이 가지만 그렇다고 소수의 학생이나마 시험에 대한 두려움과 기피현상으로까지 발전한다는 것은 정고 간과 (看過) 할수 없는 것이다. 이상은 현상의원인은 명약 (明若) 한 것이다. 변소의 성실한 학업자세와 주관한 노력이 곧에 배치 못했고 정상적인 대학생활의 의미 (意味) 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데 기인하는 결과일 따름이다. 이러한 현상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점이라는 하나의 평가기준에 의의를 전 비중을 두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반면에 심리학상,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의 확립, 진중지식 습득에 대한 중지등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 다소 등한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비근한 예의 하나로 학생들 자신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특해하고 있는 도서관이용문제의 단속성 (斷續性) 을 들수 있다. 시험기간과관계없는 평소에는 각종 취직시험을 염두에 두고 있는 3, 4학년을 위시한 학각별의 이용자 수는 불과 30~40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 시험기간이 임박 공고되면 이용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열람실은 물론 참고도서실마저 외관히 시험준비를 위한 학생들로 꽉찌지고 심지어는 도서관 입구에 입퇴양하 학을 보고 있는경우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은 비단 본대학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리고 시험기간중 열심히 도서관을 찾아다니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여기하여 없음하, 하지만 최 시험대반 그당계 효율상을 떠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 문제임바를이다. 시험만을 중심으로한 급조심력 (急造實力) , 심신위축의 악순환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폐습은 더욱 고질화할 것이고, 진정한 대학생활의 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급범 중간고사를 중요함에 즈음하여 우리는 진전적인 학풍의 쇄신을 위해 입전된 학습무드를 유지하고 진리탐구의 기풍을 확립해야겠다는 자성 (自省) 이 필요하며, 이것이 현재 대학의 초트러진 지주를 정립할 수 있는 원경임과 동시에 우리들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새삼 깨달아야할 것이다.

학원선거무드 본격화 할 기미

동문회 중심으로 갖가지 움직임 벌릴듯

입후보자 윤곽 어렴풋이 들어나기 시작해

대의원회 불법, 타락방지 위한 방안모색중

5월에 접어들면서 중간고사전기로 접잡혔던 학원선거기운이 시험의 종료와 함께 고개를 쳐들기 시작 6월초순으로 예정된 선거일에 가까워짐에 따라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것단다.

타 대학과 선거에 대한생 탐파입후보자가 없으므로해서 빚어지는 일련의 사태와는달리 본 대학에서는 벌써 총학생회장 입후보 물망에 오르내리는 수가 4, 5명으로 음박이 회미하게나마 떠오르고 있고 여학생회장 입후보로는 이미 표면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전 역시 동문회를 중심으로 막후 공작등일련의 선거운동이 벌어질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 총학생회장자리를 놓고 벌어질 입후보자들의 경우 소속 동문회에서 솟아어부를 면할 학회에 의한 결격여부 당선기준 반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으로 학회개정을 시급히 촉구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만약시일내 학회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현 학회를 업격히 적용 학원제 선거에서의 바탕 부정요소를 최대한으로 뿌리뽑을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G. S. 오픈 카페 마련

본대학 정스카웃 (회장 : 홍정표) 은 22일부터 24일가지 테니스 코트앞 휴게 넓이 주변에서 Open-Cafe를 마련한다. 매일 오후2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오픈 카페는 지난번 봄을 자려넣었에 따른 자선기금을 마련하기 위한것으로 정스카웃 회원들은 의해 찍접 다과가 제공된다.

세계공산권문제 심포지움

11개국 학생대표 참가

세계 공산권 문제 심포지움이 지난 4일 오전10시 총학생회 주최로 미국, 자유중국등 11개국 학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신관 A—V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본대학 학생들이 참석, 각나라 대표들과 서로의 처지와, 승공문제에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으며 오스트리아 부불조 대표의 주제 발표를 선두로 각 대표들의 발표가 본보생들의 통역으로 2시간동안 있었는데 자유중국 대표는 『대합국이 중동의 음모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유엔에의가입을 허용한 것은 매우 심망을 금할 수 없으며, 자유우방국들이 더욱더 협력하여 공산주의 파도에 함께 정진하자』고 하였다. 또한 모든 유엔대표들은 유엔은 아시아와는 달리 불부평한 경계선이 존재, 그들의 위협을 앞장 느끼고 있는데 아시아 각국은 『유엔은 공산주의 위협이 없다』고 오해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우며, 서로 단결하여 공산주의에 대항하여야 한다는데입을 모았다.

대표자 곤난루, 외국 대표들은 아킨탕, 폴일의 노력불비못한 우리나라 노력을 합창, 다시한번 결속을 다짐했다.

한국 정치학회 춘계세미나

국내 정치학자 40여명 참석리에

한국 정치학회 (회장 : 정인홍 성대교수) 1972년도 춘계세미나가 지난6일 오전10시 30분 본대학 법전 101호실에서 국내 정치학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식교수 (동국대) 는 『한국 정치학과 한국 정치학자』 노재봉 교수 (서울대) 는 『한국 정치학과 한국 정치의 본질』 이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우리나라에는 정치학의 일부밖이 되는 민족사학이 체계화 되어있지않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고, 이정식교수는 정치학자의 권력화, 정치학의 타산화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노한 노재봉 교수는 현재의 부패는 옛날부터 전통적 관료적인 부패라 규정지으며 옛날의 관료적 부패로 인한 지자와 피지자 사이의 상호소외가 현재에는 정치적 무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전 중앙토론회에서 유근식 (심리) , 이영재 (한대) 김계수 (외대) 등 10여 교수 및 법인이 있었는데 발표내용의 피상성, 고도한 전문용어의 남발등과 한국 정치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회가 끝난후 참가교수들은 신관에 설치되어 있는 언어 실험실을 둘러보았다.

대학신문 기자 체육대회

오는 28일 중대에서

남항을 거점에은 제8회 문공부장관기쟁탈 대학신문기자대항 체육대회가 오는 28일 중대에서 개최키로결정했다.

그중안 복학예의 연기사태를 빚어온이번 대회는 지난 16일 각대학신문 편집장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세부사항은 추후통지키로했다.

수학여행마쳐

250여명 참가

4학년 수학여행단이 지난 9일부터 12일가지 3박4일의 여정 (旅程) 을 예정대로 마쳐 무사히 돌아왔다.

9일 오전 10시 6대의버스로 교정을 출발하여 설악산에서 2박, 낙산, 경포대를 거쳐 장통에서 1박하여 12일 오후7시 서울에 도착했는데 참가인원은 약 250명이었다.

외대문학상 발표 ‖ 본보 168호 5월31일까지

원고마감 바루!!

○소설 (70매 내외)
○시 (2편이상)
○수필 (30매 내외)
○번역 (제한 없음)

이문강학금지급

본대학 학생처는 이제까지 미루어오던 신입생 장학금(이문장학금) 을 일괄 지급하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본장학금을 받게되는 학생은 총24명으로, 1972년도 신입생 중 전체수석 (S. 1, 이기봉) 과 각과별 수석자들이다.

지급 금액은 전체수석에게 97,000원, 과별 수석 자에게 57,000원씩 인정으로 알려졌는데, 지급기일은 5월12일부터 5월16일 가지로 발표되었다.

이문장학금지급

본대학 학생처는 이제까지 미루어오던 신입생 장학금(이문장학금) 을 일괄 지급하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본장학금을 받게되는 학생은 총24명으로, 1972년도 신입생 중 전체수석 (S. 1, 이기봉) 과 각과별 수석자들이다.

지급 금액은 전체수석에게 97,000원, 과별 수석 자에게 57,000원씩 인정으로 알려졌는데, 지급기일은 5월12일부터 5월16일 가지로 발표되었다.

학기말고사 앞당겨져

—4학년R.O.T.C.하계훈련연장이원인—

72학년도1학기 기말시험기간이 예년보다 열흘정도 앞당겨져 6월28일부터 7월6일가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무처와 ROTC행정관실에서 밝힘에 의하면 이번 학기말시험의 조기 실시는학년 2년차생들이 지난3학년1 학기 훈련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캠퍼스 시 피는 4주간의 하기 정양훈련기간을 한주간 더 연장, 7월8일부터 입영하기제문이라 한다.

한편 금년 ROTC하계훈련은 2년차부교생들은 7월 8일부터 5주간, 1년차부교생들은 7월12일부터 4주간 입영, 훈련하게 되는데, 2년차생들의 1주연장훈련은 교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한다.

대의원 임총 22일에야

학생회의 결산자료 미비때문

지난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72학년도 제1차 대의원회 임시총회가 학생회의결산자료미비로 지연되어 오다가 오는 22일 임시총회에서 학생회 결산임원을 제외한에 학생회와 대의원회 결산임원을 다루기로 했다.

이러한 사태는 이유야 어떻든 학생회의 결산자료 제출화면 22일 임시총회에서 학생회의 결산도 합세 다룬다는 신속성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금년 ROTC하계훈련은 2년차부교생들은 7월 8일부터 5주간, 1년차부교생들은 7월12일부터 4주간 입영, 훈련하게 되는데, 2년차생들의 1주연장훈련은 교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한다.

교의 경질

지난 10일 본대학 본전실에서 학생회 임보이사인 표의 김재규박사가 전임회고 새로이서명표박사가취임해왔다.

현재 선박사는 이문동에서 서대파의원을 차리고 있는데 보건소주은 학생회에게 보건소에 미만 응보를 인식, 약품을 장만 관계자에 의해 사용할것, 치료보 병에 대한 상단에 적극 이용할 것등을 바라고 있다.

이문 Chronicle

○…학원선거가 닥아오자 각 동문회는 계획적으로 회합을 가지고 적당한 인물찾기에 부심하고있는 실정인데…

지난해 학원사태 이후 개정된 B학원 이상인 학생의 학생간부 자격인정 조항이 지난 대의원 동목력 이후 다시 제의된 사실이 회고되어…

학생간부를 지망하는 모든분 「우선 학점이나 게상하고 승상을 따져볼 문제이니 '세태에 공부해두라' 하시던 고교때 선생님 말씀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고.

○…지난 해부터 분리독립한 여학생회의 회장입후보를 결심한 사람들의 주변에 대한 이색적인 얘기들이 자자.

처음 세사람이 물망에 올랐는데 그중 투사랑이나 출신이고 동문회장직을 맡고 있는데다 세사람이 모두 같은과 소속, 거기에다 세사람 모두 학학생인 재원들.

여기에서 합사람이 과을 위한 중정에서 자진사퇴하고 투사랑은 신입부표로써 1명을 확정키로 했는데, 신입 부표에게 학즉에서 학속을 파기하여 두 타이밥 사이엔 밉서 삽질음이 잦려 오뉴월을 무색케하고 있다는 소식.

○…으레 시험때마다 그 농도를 짙게하는 본관 107호실 벽은 이제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못 학생들의 작품 (?) 을 받는다. 그것은 벽보 정책 또는 정치에 관한 입려의 논문으로, 시험 때마다 신학설이 벽에 올지어 계달군 서로 기록될뿐고, 마 긴 자 제취집 그 벽의 낙서는 이제 어떠이 없이—바른낙서를 할 자리가 없어—인기가 폭박보 터지만 학교당국은 새마을 운동의 보조도 맞출정 한번 선처해서 새단장 해보심이 어떨까요….

○…본자을 마무는 시험기간, 학생들의 큰 고충, 무심시간은 십분의 여유밖에 없는데 본관에서 법관, 신관으로 강의실을 찾아 가야, 다시 한번 정리하마, 거기다 번소마저 본관에는 없어 불과 5분간의 여유밖에 없는데 본관 이문동 동쪽 끝에 있는 신관 강의실을 찾아 가야, 다시 한번 정리하마

혼인 능력증명서에 관한 고찰

—독일법을 중심으로 하여—

양 수 산 <법학과 부교수>

I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예컨대, 혼인 의향에 관하였느냐, 금혼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등에 관한 문제) 외 관거법에 관해 각국의 국제사법상의 입장에 몇 살펴봤듯 같으면 혼인거행지법주의와 속인법주의가 대립되고 있다. 혼인거행지법주의는 혼인을 하나의 계약 관계로 보고 그 거행지법에 의하게 하자는 주의이다. (미국, 남미제국 등). 그러나 속인법주의에 의하면 혼인이란 계약관계라 할지라도 보통의 계약관계와는 다른 신분적 관계로서 입법역사와 종교사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인법에 의하게 하자는 주의이며 이것은 주소지법주의(덴마크 등) 와 본국법주의(독일, 스위스, 이태리등)로 나누어 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므로서 본국법주의를 택하였다. 따라서 당사자상방의 국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통본국법이 준거법인 피므로 남편과 아내의 국적을 달리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법상 유효한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夫)될 남자는 그 본국법이 요구하는 성립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처(妻)될 여자는 그 본국법이 요구하는 성립요건을 각자 구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한국남자와 독일여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 그 혼인이 한국법상 유효한혼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방사자가 한국내에서 혼인을 하든 또는 독일이나 제삼국에서 혼인을 하든간에, 한국남자는 한국법이 요구하는 성립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독일여자는 독일법이 요구하는 성립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남자는 18세가 피성숙년(한국민법 807조), 27세 미만이라면 부모동의 필요가 있을것(동법 808조), 상대방과 근친이 아닐것(동법 809조), 중혼이 아닐 것(동법 810조)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독일여자는 16세가 피성숙년, 중혼이 아닐 것, 친족의 해소 또는 그 무효선고 (독일법상에 있어서 무효혼은 당연무효는아니고 소에 의해서 주장하여야 한다) 가 있는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상간자와의 혼인이 아닐것, 근친혼이 아닐 것, 미성년자일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II

한국거행지가 한국인 경우, 즉 한국인과 외국인과 또는 외국인 상호간에 한국에서 혼인을하는 경우에는 이와같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관해서 그본국법인 외국법이 적용되는데, 그외국법이 정하는 실질적 성립요건의 구비여부를 어떻게 판단 할것인가가 문제된다. 법에 관해서 아무런 조여가 없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계각국법에 모두 통용하다는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혼인신고절차를 일부몰미고있는 한국내의 호적공무원들은 대부분이 외국법에 관한 지식이 빈약한 사람들이다.

이에 관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관해서 독일민법시행법 제13조에 의해서 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서독을 칭함임) 의 경우를 살펴 볼것 같으면, 당사자가 본국법이 정하는 실질적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호적공무원으로 하여금 등이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일혼인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국법상 금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외국법상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등이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특례이 있는 것이며 호적공무원으로부터 그와같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독일법 이유혼인에서 혼인능력증명서의 경직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비록 혼인능력증명서를제출하더라도 공고를 (독일법에서는 혼인체결전에 1주일간 혼인한다는 사실을 호적공무원이 공고하여야한다) 거부할 수 있다 (Vgl. Dölle, Familienrecht, Band I, 1964 Karlsruhe, S. 150) 뿐만아니라 혼인능력증명서는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혼인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독일혼인법 제10조 I 항 본문은 국적이없는 무국적인이기 때문에 혼인능력증명서를 제출할수 있더라도 독일혼인법 제10조가 요구하는 내용의 혼인능력증명서를 그본국의 국내관청이 발급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와같은 증명서를 제출할 수없는 사람들의 경우,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본국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과같은 특별한 경우 (Dölle, Familienrecht, Band I, 1964 Karlsruhe, S. 152 참조) 에는 혼인능력증명서 제출을 면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와같은 조여를 취함은 어디까지나 예외의 경우를 뜻함이며, 결코 의국인상호에 있어서의 금혼사유를 배제할수 있다는 법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이와같은 조여를 취함에 있어서 법정관청이 만약에 당사자간에 결혼고자 하는 혼인이 국가정책상 요망되느냐 또는 독일민인 약혼자의 법적지위가 보장되느냐, 독일외국제사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혼인한 혼인이 더욱나라에 있어서도 인정되느냐 등을 참작하는 경도 독일민법시행법 13조 3항에 위배될 뿐아니라 금혼사유를 불법적으로 가중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독일혼인법 제10조 2항 본문 (1961년 8월11일에 개정된 규정 임) 에 의해서 이와같이 혼인능력증명서에 관의 면제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권한은 혼인체결지의 고등법원장이 행사한다. 혼인체결을 희망하게 될 호적공무원의 (독일에서는 호적공무원의 면제에서 거기 식을 하여야 한다) 이 면제신청서를 접수하여 소관 고등법원장에게로 송부한다. 혼인능력증명서에 현면제신청이 고등법원장에 의해서기 각되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1개월이내에 고등법원장사 부에 이의신청을할수있다.

II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은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법률상 성립된다 (다만 조정·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는 예외이다), 즉 혼인 신고는 당사자상방과 성년자인 증인 그리이 연서하고 그 증명서를 76조에 의한 기재사항을 기재한 혼인신고를 부(夫)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처가에 있적할 입부혼인이나 서양자일 경우에는 처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 수리된 신고는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아도 혼인은 성립된다.

따서 말해서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라도 수리되었단 호적이 발생하며 타만 남을 주로 호적였다.

○…5CA에서는 오는22일부터 한달동안 신입생을 위한 초보자 키타 장습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의대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수강자는 선착순으로 20여명에 한하고 장습시간은 월, 수, 금요일 오후 5시20분부터 1시간가량이라 하는데 각자 키타와 악보에 100원을 지참하길 요망하고 있는데 키타가없는 학생을 위해별거의 여분도마련돼 있다한다.

무국적자는 제출안해도 무방

혼인성립요건 … 자국법에 따라야

혼인증명서는 거주국영사의 공증필요

선진제국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

한국에서도 「혼인능력 증명서」 제출해야

혼인능력증명서는 어디까지나 호적공무원이 혼인체결 당사자가 본국법상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등이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특례이 있는 것이며 호적공무원으로부터 그와같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독일법 이유혼인에서 혼인능력증명서의 경직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비록 혼인능력증명서를제출하더라도 공고를 (독일법에서는 혼인체결전에 1주일간 혼인한다는 사실을 호적공무원이 공고하여야한다) 거부할 수 있다 (Vgl. Dölle, Familienrecht, Band I, 1964 Karlsruhe, S. 150) 뿐만아니라 혼인능력증명서는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혼인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독일혼인법 제10조 I 항 본문은 국적이없는 무국적인이기 때문에 혼인능력증명서를 제출할수 있더라도 독일혼인법 제10조가 요구하는 내용의 혼인능력증명서를 그본국의 국내관청이 발급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와같은 증명서를 제출할 수없는 사람들의 경우,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본국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과같은 특별한 경우 (Dölle, Familienrecht, Band I, 1964 Karlsruhe, S. 152 참조) 에는 혼인능력증명서 제출을 면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와같은 조여를 취함은 어디까지나 예외의 경우를 뜻함이며, 결코 의국인상호에 있어서의 금혼사유를 배제할수 있다는 법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이와같은 조여를 취함에 있어서 법정관청이 만약에 당사자간에 결혼고자 하는 혼인이 국가정책상 요망되느냐 또는 독일민인 약혼자의 법적지위가 보장되느냐, 독일외국제사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혼인한 혼인이 더욱나라에 있어서도 인정되느냐 등을 참작하는 경도 독일민법시행법 13조 3항에 위배될 뿐아니라 금혼사유를 불법적으로 가중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독일혼인법 제10조 2항 본문 (1961년 8월11일에 개정된 규정 임) 에 의해서 이와같이 혼인능력증명서에 관의 면제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권한은 혼인체결지의 고등법원장이 행사한다. 혼인체결을 희망하게 될 호적공무원의 (독일에서는 호적공무원의 면제에서 거기 식을 하여야 한다) 이 면제신청서를 접수하여 소관 고등법원장에게로 송부한다. 혼인능력증명서에 현면제신청이 고등법원장에 의해서기 각되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1개월이내에 고등법원장사 부에 이의신청을할수있다.

II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은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법률상 성립된다 (다만 조정·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는 예외이다), 즉 혼인 신고는 당사자상방과 성년자인 증인 그리이 연서하고 그 증명서를 76조에 의한 기재사항을 기재한 혼인신고를 부(夫)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처가에 있적할 입부혼인이나 서양자일 경우에는 처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 수리된 신고는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아도 혼인은 성립된다.

따서 말해서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라도 수리되었단 호적이 발생하며 타만 남을 주로 호적였다.

○…5CA에서는 오는22일부터 한달동안 신입생을 위한 초보자 키타 장습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의대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수강자는 선착순으로 20여명에 한하고 장습시간은 월, 수, 금요일 오후 5시20분부터 1시간가량이라 하는데 각자 키타와 악보에 100원을 지참하길 요망하고 있는데 키타가없는 학생을 위해별거의 여분도마련돼 있다한다.

학생논단

이심전심의 사상

이 일 성 (독어과 4)

세가세준이 형 신뢰상에서 만 일의 꽃을 만지지 거리가 마하기심이 물체 그 뜻하는 바를 집작하고 빙그레 웃었다는 이야기가 불문 (佛門) 에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지나침 정도로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남이야 어떻게되든 자기 자신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산고방식이 사회의 저변에 무섭게 도사리고 있는것 같다. 인간이 피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혐중고 비방할 때 그밖에 다는 것 만큼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자기 가리도 심적이로는 행복하다고는 이는 무구도 자부하지 못할 것이다. 타동사람을 불신하고 모략해야만 입신이 출세함을 알고 남보다 나음 수 있다는 믿음은 인간관의 인식불이 우리 사회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는지 경화하게 단정할수는 없으나 현실사회에서 일어한 사실로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이것을 수수방관만 하고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하등의 상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지성인의 타도요서는 도저히 못마땅한 것이다.

심복를 품자면 그 에는 비일비재하나 일례를 들자는 최근 고등학교 중생생 신구중의 한 사람을 만나러 밖에서 연날을 찾고하며, 즐겁게 정담을 나눈 기억가 있었다. 지금은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출세하여 남의존경을 받을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도 그는 대화중 무의식적으로이 세상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자기가 잘되고 보아야 한다는 식으로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어떠키에 나는 그 친구를 존경해왔으나 그 한 마디를 들었을때 그의 인격에서 경요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그러한 논법으로서 상을 견경한다면 박어, 절생, 봉사함는 발을은 아마 옛날 공중들을 진열해 놓을 박물관에나 전시해 놓을 수 있는 골동품과 같은 것으로 전락되어 아무 쓸모 없는 무용지물의 단어들로 밖에 결론지을 수 없는것이다. 요즘은 한참 신나게 떠 드는 정풍운동 사회인에 요모조모라는 사건들로 거금횡령으로 쇠고랑을 차고 비참하게 체포당에 서있는 복병 부패고관경무들들, 돈을 장탈하기 위하여 일가족을 공멸하게 살해를 무자비한 강도들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국민학교 어린이도 장간한 절면지 지한를, 사람을 지쇠, 속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냉혈이는 냉혈을 생각은 주고도 하지않고, 물체방을 놓은 인정 없는 악덕 · 흉전사아저씨들 실저이는 우리가 일상 먹는 부부속에 젓가루물넣어 남이아이고 죽든 말든 자기만 지부 위면 된다는 끄악만 두부장만남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의이 부지기수의 사건들이 계속 우린 목전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건들 을 지지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필자의 좁은 소견으로서는 선뜻 생각이 나서지 않을 만큼 심각한 일들인 것이다. 길거리에서 방뇨 · 씨에 치일려고 하는 사람이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던질 용기는 없을망정 조금이라도 여태껏 나 다운의 양심을 만지지 거리자 마하기심이 물체 그 뜻하는 바를 집작하고 빙그레 웃었다는 이야기가 불문 (佛門) 에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지나침 정도로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남이야 어떻게되든 자기 자신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산고방식이 사회의 저변에 무섭게 도사리고 있는것 같다. 인간이 피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혐중고 비방할 때 그밖에 다는 것 만큼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자기 가리도 심적이로는 행복하다고는 이는 무구도 자부하지 못할 것이다. 타동사람을 불신하고 모략해야만 입신이 출세함 알고있고,

한국 정치학회 춘계 세미나를 보고

김 계 수 <정외과 교수>

현대정치학의 현저한 특색으로서 두가지 현상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인터디시플리너리」 interdisciplinary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 사실발견, 법칙화 원칙의 민속한 보편의 필요이다. 이 두가지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원래 지식이란 전단사회내에서의 정보라고 말할수 있다. 정치학의 학상 입장은 이러한 지식의 교환없이 그 구현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정치학의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학문교류문제가 지적되고 있는것은 당연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된다. 사실상 어떠한 지식교환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가? 그 정도는 어떠한가? 어떠한 전달의 통로가 현재 가장 유효한가?

내지적 교환의 「룰」 조건은 어떠한가? 등등은 우리 정치학의 항상 내지발전의 양태및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준다고볼수있다.

대체로 우리나라 정치학계의 학문교류는 거의 일정 한 정도로 괄말지 못한것이 그 현황이다. 이러한상황속에서 한국 정치학회가 어려가지 악조건을 무릅쓰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그 노력을 기우리고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가끔 개최되는 한국정치학회 주최의 발표회는 한국정치학계의 학문교류를 위하여 적지 않게 공헌하고 있는 성이다. 지난 5월6일 한국정치학회 주최의 「춘계세미나」가 유정 명, 김덕 양교수의 수고와 대학당국의 적극적 협조로써 본대학에서 개최되었던 것은 본대학의 정치 행정학 교수들의 큰기쁨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대의 정치의 보학과, 행정학과의 건재를 정치학 교수중에서도 아직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사람도 있으나 많이다.

이번 발표회를 한국정치학회에서는 거창하게 「춘계세미나」라고 이름을 붙였으나 실상 이번 발표회는 과거의 일련 발표회와 별로 다름이가 없었고 또 그 발표내용및 수준과 토의과정, 양식등에 있어서도 별로 과거의 일련 발표회와 다름바가 없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자는 두사람이었데, 그리고 그내용은 「한국정계」와 「한국정치학」과의 관련을 규명하여 보려는 의도인것 같았다.

그러므로 「한국정치학」의 주제적 접중자인 「한국정치학자」에게 초점을 두어 그것과 「한국정치」와의 상호 관련을 규명해 볼수도있고 또 「한국정치」의 본질을 연역함으로써 「한국정치학」의 긴요한 대상을 논할수도 있다. 따라서 이정식교수 (중대)의 논제는 「한국정치와 한국정치학자」였고 노재봉 교수(서울대)의 논제는 「한국정치학의 대상으로서의 한국정치의 본질」이었다.

이 (李) 교수의 논제요지 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교수는 먼저 「한국정치학자의 생태」로써 한국정치학자의 배경 (출신대학연령학위서독상황 교수직계등) 을 62년과 72년을 주로 비교하였고 또 외국에서의 훈련자와 국내에서의 훈련자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전는문의 기본적인「설정」으로 하여 이러한 한국정치학자의 생태와 사회정치의 주기적 순환과정과의 관련을 규명하여 보려고 했것 같다. 이교수는 한국정치의 주기적 순환은 ①「재래성 또는 재조정」 ②정치과정의 생장 ③정치문화의 불안과 정치적 이해을표기의 등장 ④란포제도화 ⑤정치과정의 쇠퇴 또는 위약 ⑥변화 요구라고 지적한다.

그리하여 실제정치과정의 이러한 주기적 순환과정에서 정치이론이나 정책보다도 정치집력의 「기종성」과 「집중적인 권력체제」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①정치학과 정치학자를 정치과정에서부터 도피시키는 작용 즉「비권력적인 정치학」, 「도피적정치학」 또는 「비권력정치학의 존립상실」 ②「이데올로기 정치학」으로 발생된 한국정치학이 또다시 현실적인 「욕체적정치학」으로부터 퇴손적인 「문학적 정치학」으로의 변화 ③「유산적 정치학」의 「타산적 정치학」으로의 타락 ④지나치게 정력의 제약자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가치 중립의 요구 즉 정치학의 과학화 또는 권력화문제 ⑤한국정치학회의 결의동을 고찰음으로서인술하고있다.

다음에 노 (盧) 교수의 발표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노교수는 먼저 한국정치학 또는 정치의 이상이념을 자유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현실 (실제정치) 과 이념 사이에 그 간극이 심한데 한국 정치의 특색을 밝건한것 같다. 여기서 노교수는 관자요인 (Residue element) 이란 개념을 인용하고 이것이 한국정치의 특색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정치학을 미시적정치학 (60년대에 압도적이었다고 노 교수는 말하고 있다) 과 포괄적 거시적정치학으로 분리하였다. 한정된 사회에서는 전자가 안정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후자가 성행되나 우리국의 정치학은 독특적이고 실천적인 정치학이어야 한다고 극히 당연한 결론을 내린다. 그리하여 독특 적이고 실천적인 정치학을 위하여 서는 정립적, 귀납적 방법 론 보다도 연역적 본질적인 방법론을요구하고있다.

노교수는 한국정치의 본질적 성격으로서 그구조적 특성을 전통적 동양사회의 특색인 관료주의에서 구한다. 따라서 한국정치는 단절 또는 파괴한인화를 거쳐왔으나 사실적으로는 이러한 동양적 관료주의의 등과 장한 유비를갖고 있고 여기서 부패, 착취의심화현상이 나타나타고 지적한다.

이러한 요지의 두교수의 논문발표에이어 참가한 회원들로부터 심각한 질문이 많이 야기되었다. 특히 노 교수의 발표논문에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솔직하게 말하여이번 「춘계세미나」의 발표논문은 이것이 현국정치학회 수준을 나타내주는 발표도 아니었고 또 수없이 많은 발표회를 가졌던 정치학회에서 어떠한 특이한 의미를 던져주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정치학의 발전내지 향상을 모색하려는 모처럼의 이러한 회합을 앞으로 더욱유효하게 살려나가기 위하여 앞가지 우리의장상을 기록하여 두는것도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첫째 모처럼의 정치학회 발표회는 연구하여온, 또는 충분히 준비된 논문 발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한정 사상의 연구발표라가 개최되는 것이다. 최소한도 그 발표자의 성의와 성실성이 있는 논문이어야하고 일반 현단 한지에게 제외는 논문과 다른 중량 감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정치는 그 매상도 넓고 그 깊이도 깊기때문에 사실상 그 학문연구에 있어 어려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분야이다. 그러나 이러할수록 정치학은 간단하고 분명하고 일관된 논리전개가 요구되어야 한다.

이에 많은 기본적 개념자체에서 가지도 혼란 또는 불일치를 야기시키고있다. 이러한 현황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발표논문의 논리과정에 조심하여야 하지 않을가 생각된다.

세째 앞에서 말한것과 관련되지만 특히 철학적 역사적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개념과 논리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철학적 역사적방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오히려 그의 많은 도움을정치학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에 많은 기본적 개념자체에서 가지도 혼란 또는 불일치를 야기시키고있다. 이러한 현황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발표논문의 논리과정에 조심하여야 하지 않을가 생각된다.

세째 앞에서 말한것과 관련되지만 특히 철학적 역사적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개념과 논리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철학적 역사적방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오히려 그의 많은 도움을정치학을 요구하고 있다. 그 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최소한도 그 발표자의 성의와 성실성이 있는 논문이어야하고 일반 현단 한지에게 제외는 논문과 다른 중량감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정치는 그 매상도 넓고 그 깊이도 깊기때문에 사실상 그 학문연구에 있어 어려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분야이다. 그러나 이러할수록 정치학은 간단하고 분명하고 일관된 논리전개가 요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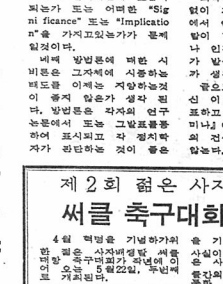
지난 5월 본대학에서 개최된 「한국 정치학회춘계세미나」

일반잡지 게재논문보다 중량있어야
방법론에 대한 시비론의 지양필요
분명하고 일관성있는 논리전개 아쉬워

민중의향에, 민의의 존중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후진국의 정치, 정치학이란 하나의 학문적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정치학자 배경의 국내외비교에중점
실제정치와 이념사이의 편차요인 중시

본대학 5개연구소중에서 제일 먼저 설립된 국제사정연구소는 1964년 4월20일 본 대학 개교10주년 기념으로 발족하여 초대소장을 최 완복 교수가맡았고 그리고 2, 3대소장을현재의 유 정렬 교수가 맡고 있다. 원래는 해외사정연구소고 그 명칭이 외이었었으나 1968년 지금의 명칭 국제사정연구소로 개칭하였으며 올 3월에는 종합문제연구실을 증설하기에이르렀다. 해외여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사정을 조사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대외관계 증진에의 기여를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당 (黨) 연구소는 정기간행물 등 도서 발행, 연구발표 자연의 개최, 복수 계획에 관련 연구비 보조, 해외 제학가에 관한 연구자료및 서적의수집과 번역, 부속도서관 설치및 그운영, 계명외국인자 초청과 소림 (所員) 해외파견 등을 그 주요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제까지의 실적 또한 적지 않다. 당 연구소의 중요한 실적으로는 「해외문제」 라는 연구지를 벌써 발행, 각급 도서관, 정부관계부처, 연구기관등에 기증하고 있는것이다. 66년에 제1집을 미국원조정책 서방아 플랜스 타인 연구를 내용으로 발간하였으며이어, 2집에 「중부동맹과 아국」 3집에 「불남 공군의 전상」 4집에 「군자금 치」 5집에 「자국의 정치와 사회」 6집에 「파리 아메리카 제국의 정치 사회 경제」의 내용으로 책년가지 발간하여 오고 있다. 도정부 자부처의 연구 의뢰에 따라 연구를 하여 각부처에 기증하은 것도 은 실적의 하나였다. 문교부의 의연구 사업으로서 68년부터 「미미 경제 외교 제문제에 관한 연구」의 보고서를 비롯하여 현재까지에 제출된 보고서를 곽 러나 심지자 도덕자 같은 독단적인 도그마적인 설교는 아무 도움을 정치학에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분야, 문제점을 위한 "아이디어" "비전" 또는 개념을 제시해주든지, 해결책이 있고 증명이 있는 사실적 지식을 도덕자 같은 아무 도움을 정치학에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분야, 문제점을 위한 "아이디어" "비전" 또는 개념을 제시해주든지, 해결책이 있고 증명이 있는 사실적 지식을 도덕자 같은 아무 도움을 정치학에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2회 젊은 사자배 쟁탈
써클 축구대회에 부쳐

4월 혁명을 기념하기위 한 젊은 사자배쟁탈 써클 축구대회가 작년에 이어 오는 5월22일, 두번째로 개최된다.

써클 총연합회가 발족된지, 작 써클 회원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게 된지는 겨우 1년을 맞는 올해 12월을 맞는 4·19에 가신 분들의 넋을추모하고, 그리고 희생사능부상자 보다도 「미학인」 「서울대학교」 이들 한자리에 모여 체육 써클들을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체력보부의 일면과 우정을 돈독히 하고 4월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정신을 계승, 보다 창조적인 미학인의 정신적 체육 써클 고리시키자 하는 이제의 중심적인 의의라고생각된다.

미루기 작년에 비해 써클활동이 상당히침체되어, 보다 많은 남자의 참여와 써클활동을 기대할것을 현예에 바란다.

불교학생회

불교의 여명 운동에 관해 토론회를 계속, 현재까지 이토고 있다고 한다. 또한 70년 7월25일부터 일주일간 법이사 (부산 동래) 에서 바라밀 파라밀과 수련법회를 가진 것을 비롯, 9월25일에는 파계사에서 야외법회를 가졌다고.

71년에는 불교학생이 경상북도에 도에 올라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고 하는데 특히 5월21일·22일양일간 속세회원들과 함께 참회정진 (1080배) 을 가진 것은 불교학생 활동에 더욱 깊은 의의를 갖는다고 한다. 또한 작은해 6월19일에 제2회 정립기념법회를 마련, 지도법사 서윤스님 (동국사주지) 과 지도교수 안태호박사를 모시고 파계 의식을 가졌다고 한다.

이번 「불교학생회」 써클 활동에 있어 일마 되지 않던 회원이 현재에는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만도 무려 30여명이 된다고 한다.

물론 동고활동이라는 것은 듯있는 사람만이 모여 대의적 활동보다는 써클 지체내에서의 활동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은 불교회원 조성문제도 있고 해서 미의적인 활동도 겸비해야 된다고 희장 한우태군은 강조한다.

70년에 6월20일 창립 1주년기념 법회를 맞아 서울대 이대 고대 숙대 회원들을 초청, 법경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가진지 벌써 금요일마다 회원들 모두가 써클룸에

학내 써클탐방

시험중이라 그런지 기자가 써클 탐방을 위해 벌써 6층에 올라섰을 때에는 다른 때와는 달리 써클룸마다 조용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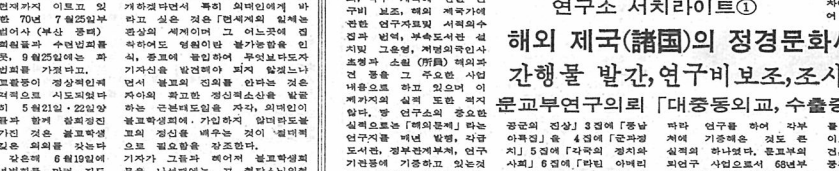
게시판엔 대로 불교학생회 써클룸을 열면서 아무도 없으면 어떨까 하던 기자의 걱정은 괴장 한 두번 (S·2) 군과 전희장 장성영 (G·4) 군의 반갑게 맞는 모습을 대하니 한꺼번에 사라져버렸다.

불교는 과거 수천년동안 우리 민족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고 또한 찬란한 정신문화를 남겨놓았으면서도 유물사상과 제국없는 사상들의 수입으로 말미암아 속세를 떠나서 현재와는 무관하고 미신적이고 비활동적이란 인식을 갖게된 사실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라면서 전희장 장성영군은 솔직을 짓는다.

지난 63년 3월20일 창립된 불교학생회는 그동안 불교에 관해서 전혀 불모지였던 본대학에 불교학생들을 진지하게 전개, 창립정신에는 일마 되지 않던 회원이 현재에는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만도 무려 30여명이 된다고 한다.

물론 동고활동이라는 것은 듯있는 사람만이 모여 대의적 활동보다는 써클 지체내에서의 활동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은 불교회원 조성문제도 있고 해서 미의적인 활동도 겸비해야 된다고 희장 한우태군은 강조한다.

70년에 6월20일 창립 1주년기념 법회를 맞아 서울대 이대 고대 숙대 회원들을 초청, 법경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가진지 벌써 금요일마다 회원들 모두가 써클룸에



연구소 서치라이트①

해외 제국(諸国)의 정경문화사정 연구
간행물 발간, 연구비보조, 조사원 파견등
문교부연구의뢰 「대중동외교, 수출중진연구」예정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10월중에 정기 간행물인 연구지 「해외문제」를 제7집으로 발행할 것이며 그 내용은 「불란국의 제동맹과 정방」 임 것이며 연구 대상국은 한국, 독일, 중국, 월남이다. 또한 전파앙이 문교부의 연구 의뢰 사업으로서 「대중동의교차와 수출증대를 위한 연구」를 발에정이며 그 연구대상국은 루웨이트, 비바는, 이란 요르단의 4개국이다.

당 연구소의 기구는 바음과 같다.

· 소장 유 정렬

· 정외과 박 승윤(학장)

김 덕 (고부학장) 이 상조 (도서관장) 백 인기 (사무처장) 유 정렬 (소장) 각연구실 실장

· 각 연구실 실장

미주연구실 (민만식) 유럽연구실 (상수산) 중동·아프리카 연구실 (유정렬) 극동연구실 (박병호) 동남아 연구실 (소명준) 남아세아 연구실 (김학) 쏘련 동 유럽 연구실 (김학수) 동일문제연구소 (이장희)

특히 당 연구소 소장인 유정렬 교수는 올해 설립지대단 연구비를 「란국의 대아랍권 외교관계 개선을위한 연구」라는 연구주제로 지급받은 바 있다.

半世紀 韓國文學의 代表作을 集大成하여 國內外에 民族文學을 證言하는 不朽의 大全集!!

收錄한 作家·詩人만 260名, 長篇 90篇·短篇 245篇·戲曲 40篇·詩 767篇·評論 38篇·隨筆 84篇 등 文學의 各장르를 總網羅

한국出版文化賞受賞圖書 韓國圖書館協會選定 優良圖書

韓國文學全集

新裝케이스 全 36 卷 月賦販賣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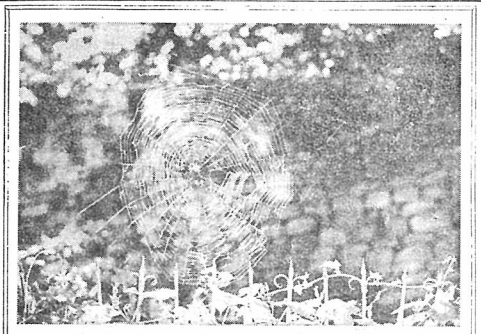
編輯委員: 朴鍾和·金珖燮·白鐵·柳致眞·鄭飛石

四六版·豪華洋裝·비닐 커버·特製藏書本 各卷 1,200원 全帙價 43,200원

1 李光洙 사랑·흙·端宗의 死
2 金東仁 金東仁 創作集·감자·붉은 산·김동인 文藝
3 廉想涉 廉想涉 短篇集·두 파산·두 개의 죽음·墓地·標本室·三代·新婚記·高麗葬·만세전·두 개의 주기·미해결·표본실의 청개구리
4 羅稻香 羅稻香 短篇集·倫理·幻滅·白華·벙어리 삼룡·물레방아·
5 朴鍾和 朴鍾和 短篇集·소낙비·레디메이드 인생·정조·논·갈·
6 金東仁 金東仁 短篇集·감자·붉은 산·김동인 文藝
7 崔鶴松 崔鶴松 短篇集·탁류·인간 문제·
8 李孝石 李孝石 短篇集·돈·개·
9 蔡萬植 蔡萬植 短篇集·태평천하·
10 李無影 李無影 短篇集·장마·
11 朴花城 朴花城 短篇集·고개를 넘으면·
12 李箱 李箱 短篇集·날개·
13 玄大鈞 玄大鈞 短篇集·
14 崔貞熙 崔貞熙 短篇集·
15 金東仁 金東仁 短篇集·
16 張赫宙 張赫宙 短篇集·
17 沈熏 沈熏 短篇集·
18 朴榮濬 朴榮濬 短篇集·
19 金東里 金東里 短篇集·
20 鄭飛石 鄭飛石 短篇集·
21 安壽吉 安壽吉 短篇集·
22 黃順元 黃順元 短篇集·
23 朴啓周 朴啓周 短篇集·
24 金末峰 金末峰 短篇集·
25 金光洲 金光洲 短篇集·
26 郭夏信 郭夏信 短篇集·
27 林玉仁 林玉仁 短篇集·
28 崔仁鶴 崔仁鶴 短篇集·
29 鄭人澤 鄭人澤 短篇集·
30 鄭昌洙 鄭昌洙 短篇集·
31 短篇集(下) 短篇集(下) 短篇集(下)
32 戲曲集(上) 戲曲集(上) 戲曲集(上)
33 戲曲集(下) 戲曲集(下) 戲曲集(下)
34 詩(上) 詩(上) 詩(上)
35 詩(下) 詩(下) 詩(下)
36 評論·隨筆 評論·隨筆 評論·隨筆

株式會社 民衆書館

서울 ⑨9503·4548 ⑳3566/釜山 ①1830/大邱 ②1551/大田 ②6028/光州 ②0207/全州 2611/清州 3511/春川 2818/濟州 2086/仁川 384/議政府 2709/牧山 200/議州 422/平澤 651/忠州 261/提川 2835/原州 2073/江陵 3220/浦川 218/寧越 173/北坪 316/論山 217/公州 444/天安 3314/裡里 ②3502/金堤 504/群山 4433/南原 1119/木浦 ⑳0427/順天 2936/麗水 4070/寶城 124/晉州 2835/井邑 784/麗泉 139/尙州 340/慶州 748/安東 444/金泉 625/榮州 1006/浦項 3396/店村 2058/密陽 401/蔚山 2485/馬山 5254



PHOTOGRAPHIC EXHIBITION

어느 집 담위에서 처마와 처마사이로 거미는 그 장인한 생명력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 장인한 속에 [illegible] 그 유정하고도 정확한 [illegible] 거미의 생리 (生理) 를 [illegible] 속으로 주는…

문단에 활약중인 외대인

작은 즐거움, 큰 고통

송 영

□필자소개□
□1940년생, 1953년 독어과졸(6회).
1967년 문학계간지「창작과비평」에서 데뷔.
작품「투계」「선생과 깡패가」「중앙선거자」등 발표.
현재 중학여자 전문학교 교수.

이문풍상에서 삶보하던 시절이 벌써 십년 전 일이 되어버렸다. 그동안 무엇과 쫓나 생각해보니 참으로 부끄럽고 허전하다.

어떻게 살았더냐, 이렇이 누구나 찾는년세이고 같음 쓰는 사람의 명제이기도하다. 나는 같음 쓰다는 일에 대하여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로 두지 않았다. 같음 쓰는 사람의 세계가 바로 있고 그의 모인이 바로 있고 그의 기법이 바로 있어야 한다는 믿음은 신념일 수 없는 말이다.

우리들의 시대는 지난하다. 이 시대를 어떻게 헛느나 하는 문제는 모든 시인의 도전 과제의 과제인 것이다.

옛날 이문풍상을 거닐던 때에 나는 미처 같음 쓰는 원고지의 빈칸 위에서 이 시대의 가시덤불, 험조밭과 단부락지라는 것을 어리석게도 깔았다. 그때는 자기 입다에 매겨졌고, 자기 가슴이 잠겼으며 자기 손이 자꾸스러워질때 비록 호주머니를 비어 있었으나 즐거워서 어쩔줄 몰랐던 것이다. 자기 시야를 곧로써 그려보고 파인해보고 음미해 본다는 일이 그러지도 즐거웠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즐거움보다 있지는 않다. 즐거움을 조금 밖에 주어지지 않고 그 조그만 즐거움의 배후에서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다. 옛 정나고 저주스러운 괴물가.

생각하지 말라, 의문을갖지도 말라, 비판적인고는 아예 생각지 않는, 하나의오 뿌기처럼, 인형처럼, 뼈에는 계면 표정을 입주고 살아라 하고 말한다. 이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모든 인간들의 가슴 속까지 전염해버린지 오래인 것이다.

우리는 서글프다. 이 아픔과 부끄럼 세우는것이다.

우리는 서글프다. 이 아픔과 부끄럼으로 이 벽을 두드리고 깨트리려고 애쓰는 것이다. 고통은 어기서 나온다. 만약에 이 벽을 이미 비롯 근육에 미리에 이쪽 리하라는 조직에 대하여 싸울 음기가, 그것을 깨트리고 그 정부심 확신이 없는자리면 같음 쓰는 것은 적어도 하나의 자기가 되는 것을 그만 두는게 좋을게 아닌가, 제나라면 이것이 같음 쓰는 정위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책은 또 있다. 바쌍이 그것이다. 그것은눈에 쉽게 보이지도않고 입 물론 손에 잡히지도 않는지 모르는 것이다. 그것은 그러나 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의표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의표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의표속에 있다는 것이